

RE100 산단 TF가 1년간 제 기능을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7.13. 아시아투데이는 「RE100 산업단지 TF 1년간 제 기능 못했다」 기사에서,
 - “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(TF)는 지난해 세 차례 회의를 끝으로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,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력모델도 최근에서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.”라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동 기사가 언급한 ‘RE100 산단 관계부처 합동 TF’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TF로, 특별법 발의 이후 자연스럽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
- 특별법 통과 후 정식 사업 추진체계로서 정부 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며,
 - RE100 산단은 다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입지 지정은 산업부·국토부 공동, 사업 시행은 산업부·기후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, 동 기사의 보도와 같이 추진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
 - 연구용역 발주는 동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
- 따라서, 범정부 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초광역산업협력과	책임자	과 장	이주노 (044-203-41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성준 (044-203-4121)